

'95년 테마株에 주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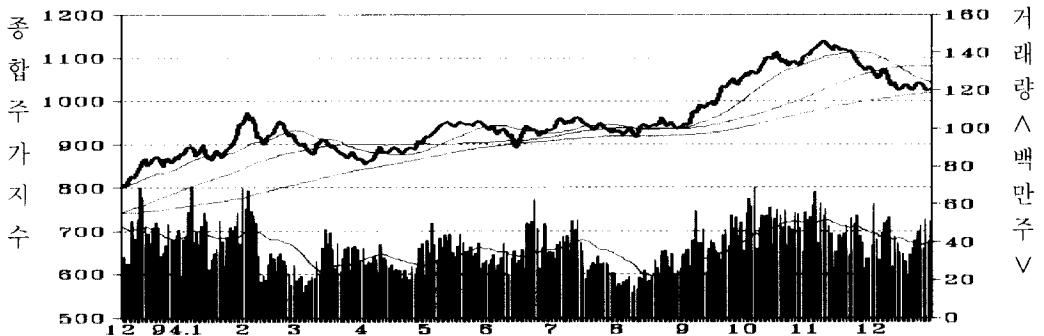
박종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증권·금융

'94년 證市 회고

'94년 증시는 5년만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 P를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금년초 879.32 P로 시작했던 주가 지수는 9월 16일 1,000.80 P로 4자리수 시대로 접어들었고, 11월 8일에는 1,138.75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28일 1,027.37 P로 폐장하면서 지난 1년동안 16.84%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금년 외국 주요 증시가 대부분 약세였던 것에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실적이다.

풍성한 신기록 수립의 해

주가 상승뿐 아니라 '94년에는 거래 대금(230조 원), 시가 총액(151조 원) 및 고객 예탁금(4조 1,800억 원), PER(21.8배) 등에서 신기록이 쏟아지는 풍성한 한 해였다. 개별 종목에서는 한국이동통신이 주가 수준(659,000 원)에서 상업은행이 일일 거래량(669만 주), 한진해운이 연속 상한가(213 일) 부문에서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러한 기록 풍년속에서도 주가의 양극화와 우선주 폭락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 '95년 證市 완만한 상승세

지난 연말 주가 하락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95년의 증시 주변 사향을 보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경기 측면에서 보면 7%대가 넘는 경제 성장률과 7.8%에 이르는 높은 고정 투자 확대로 경기가 안정적인 확장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다. 증시 수급면에서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공급이 약 13조 4,100억 원에 그치는 반면, 수요는 약 17조 2,000억 원으로 3조 7,900억 원의 초과 수요가 예상된다. 특히, 증시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지자체 선거와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다. 선거는 경기 확장 국면하에서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 투자 확대는 해외 자금의 유입 확대로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표 1> 증시의 수요와 공급

(단위 : 백억 원)

供給部門		需要部門	
· 기업공개	180	· 은행	633
· 유상증자	720	· 증권	7
· 무상증자	12	· 투신	275
· 주식배당	42	· 보험	140
· CB전환	13	· 기타	75
· 중앙기금	200	· 개인투자가	75
· 정부지분	44	· 외국인 수요	480
· 투신 물량	130	· 국내 외국인	35
총 계	1,341	총 계	1,720

따라서 '95년도 우리 증시는 1/4분기에는 지난 연말의 하락세에 대한 선취매와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4분기중에는 국책 사업의 진행과 기타 SOC 관련 사업 발표로 주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3/4분기에는 정부 지분 보유 물량 출회와 정부의 지자체 선거 자금 환수 노력으로 주가 조정이 예상된다. 그리고 4/4분기에는 무역 수지 개선과 같은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며, 외국인 투자 한도 추가 확대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 테마株에 관심을 갖자

'95년의 주가 상승은 경기 확장에 의한 블루칩 위주의 장세보다는 경제 환경 변화 및 각종 이슈에 의한 테마주 위주의 장세 전개가 예상된다. 금년에 예상되는 환경 변화는 WTO 체제 출범, 금융 산업 개편, 공기업 민영화, 남북 관계 개선 등이고, 예상 이슈로는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를 비롯하여 지자체 선거, SOC 투자, 정보 통신 산업의 부각, 연결채무제표 및 현금 흐름표 의무화 및 M&A, 산업 구조 조정 등이다. 특히, 막대한 SOC 투자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과 '95년부터 부각될 방송 산업으로 정보·통신 장비 관련 업체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질 것이다.♣